

대학평의회회의록

| | |
|-----------|-------------|
| 회의소집통지일자 | 2016.01.12 |
| 의원수 : 11명 | 출석의원수 : 11명 |

1. 회의일시 :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1:00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장수진,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박종운, 김원수, 김흥수, 황철하, 김석주, 김태환

나. 불참의원 : 없음

4. 회의안건

제1안 : 2015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2016학년도 본예산(안) 및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

제2안: 2016년 교육과정안

제3안: 학칙개정안

5.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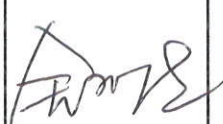

(의 장) 먼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주신 대학평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은 제1안이 2015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2016학년도 본예산(안) 및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이고 제2안이 2016년도 교육과정안이며, 제3안은 학칙개정안입니다. 규정상 제1안과 제2안은 자문이고 제3안은 심의입니다. 그러면 제1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진) 안녕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익진입니다. 먼저 2015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 및 2016학년도 본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올해부터 세입회계에서 이월금이 등록금 수입대비2%를 넘지 않도록 해야되어 순수한 유동자금인 6억7천5백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여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매각으로 기타투자자산 회수금액, 미사용 금액 등을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등록금은 재학생 수가 약간 줄어서 약간 감액되었구요. 법인전입금은 5천만원 증액하였는데, 국고지원금은 약간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율이 낮아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수입금을 편성하였는데 일부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이 약간 증액되었구요, 투자 및 기타자산이 기본재산매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83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수부분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관리운영비에서 지원사업운영비 등은 별도회계여서 교비회계에는 영향이 없지만 규정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및 학생경비에서 실험실습비를 절감했구요 메르스로 인한 해외자원봉사 등이 취소된 부분이 있

| | | | | | |
|------------|---|------------|---|------------|---|
| 의 장 이명환 |  | 평의원 김택균 |  | 평의원 김원수 |  |
|------------|---|------------|---|------------|---|

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상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3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16학년도 본예산의 주안점은 2015학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과 대학의 평가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구요. 그렇더라도 대외 평가에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추경 등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과별로 등록금 수입이 상승하더라도 그 만큼 늘어난 학생들에 대한 직·간접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상승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 드리구요 전입기부금은 동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국고지원사업비도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대 시설 등 대여료 직영사업도 일부분에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여 약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월금 15억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6학년도 본예산을 세입을 5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보수가 10억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구요. 교내복지시설 등에서 매출증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기타운영비를 상승시켰습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다소 감소할 것을 예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긴급사업지원비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을 5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인데요 학교발전과 외부평가를 대비하기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여야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학 발전계획의 핵심인 자금확보 예측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수입은 대학구조개혁을 고려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구요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보수의 매년 퇴직자 수 및 자연인상분을 토대로 평균 1% 인상을 예측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중 시설관리비는 건물의 노후화로 많은 보수의 필요성이 예상되어지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는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정하였습니다. 연구학생경비에서 연구비는 학과 발전을 위한 융, 복합 교육 과정 개발 등의 연구를 육성하고, 교내 장학금은 장학금지급률 영향으로 매년 0.1% 인상을 가정하였구요 교육용 기자재 및 비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나, 최근 5개년간 국고보조금과 연계하여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제1안인 2015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및 2016학년도 본예산(안) 과 중·단기 재정운영 계획(안)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지난번 평의회회에서 기본재산매입을 보고하였는데 이 부분이 완료 되었는지요?




(김익진) 매입 완료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종운) 아 그런데요, 회계상 전년도 차기이월자금과 예산서상에 미사용이월자금은 일치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익진) 특례규칙상 이 부분이 다소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균) 여러 사정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등 대학의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학에서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도 수익사업의 창출 등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2016학년도 본 예산은 박종운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자문을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2016학년도 교육과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의 장 이명환 |  | 평의원 김택균 |  | 평의원 김원수 |  |
|------------|---|------------|---|------------|---|

(김경한) 먼저 추운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방향은 대학 인재상에 따른 기본 핵심역량 및 소양교육, 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응한 현장중심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HIT-LOC 보완), 학과 및 타 학과 전공지식의 단계적 융합, NCS 직업기초 능력 과목 운영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양필수과목을 새롭게 선정하고 졸업시 교양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과에서는 교양선택 중에도 직업기초 능력이 포함된 과목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지정한 영역(2년제 3개 영역, 3·4년제 모든 영역)에서 최소 1개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도록 지도하여 특성화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업기초과목과 NCS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무학기로 구성하여 재학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습을 할 수 있고, 실습 후 바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설학점(교양, 전공과목 포함)의 합이 졸업학점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여러 과목이 난립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시작된 HIT-LOC체제를 보완 유지하여 소속학과에서 수강하여야 하는 전공최소이수학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위주로 수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의 장) 설명에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의 방향의 대부분은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대학의 특성상 보건계열학과의 경우 전공최저 이수학점을 정해 놓는 것은 학과의 역량을 집중하기도 어렵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과 자율로 하는 것이 어떤지 묻다.

(김경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미 논의되어 결정되었고, 기본 방향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의 장)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원수) 각 학과의 자율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학과에서 수강해야 하는 최소전공과목과 자기주도과목을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택균) 동의합니다. 융·복합 교육은 교양과목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지 전공최소 이수학점을 명시하기 보다는 교양최소 이수학점만 명시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 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들의 말씀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며, 다른 부분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자문을 마치고 다음안건인 학칙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한) 금번 학칙개정안은 이미 교육과정 변경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후속조치가 학칙개정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2016년도의 대학의 직제개편의 변경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8조의 단서규정에 졸업학기 중에 있는 학생의 전과 금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4조의 제적사유에서 "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외국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고려하여 제적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36조에서 현장실습 계절제 운영으로 정규학기에 신청하는 학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15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12학점 이상 수강신청으로 변경하고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6학점이내를 계절수업 운영규정에 위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50조에서 교양최소이수학점을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제52조의 학년별 수료 요건을 향후 2016년 교육과정상 개설된 학점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자 합니다.

(김택균)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 이지만 제50조를 살펴보면 교양최저 이수학점과 학에

| | | | | | |
|------------|---|------------|---|------------|---|
| 의 장 이명환 |  | 평의원 김택균 |  | 평의원 김원수 |  |
|------------|---|------------|---|------------|---|

서 수강하여야 하는 전공최저 이수학점이 동시에 규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칙에서 너무 자세한 것을 규정하게 되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변경안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양최저 이수학점만을 명시하고 학과별 전공최저 이수학점을 명시하지 않고 학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흥수) 김택균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공최저 이수학점은 각 과에 따라 학점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받아 보시고 학칙보다는 학칙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것을 검토하여 학칙에서는 교양 및 전공최저 이수학점을 시행세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다를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학교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칙 제50조를 수정하여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금번 학칙개정안에 관해 다른 심의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은 제50조의 수정조건으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원안(안)대로 확정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 의원, 김원수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2:20분 산회)

2016년 1월 25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회 의 장 : 이 명 환

부의장 : 장 수 진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이 명 구

평의원 : 박 종 윤

평의원 : 김 원 수

평의원 : 김 흥 수

평의원 : 황 철 하

평의원 : 김 석 주

평의원 : 김 태 환